< 합격 수기 >

18학번 모○교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중등임용고시 합격자입니다.
저는 3번째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했고, 초수부터 삼수까지 제가 해왔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뛰어나게 머리가 좋거나 공부 집중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합격하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끝까지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1차 탈락, 최종 탈락, 최종 합격을 모두 겪으면서 느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들을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경험에서 좋은 점들만 가져가셔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빠르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3번 모두 전남 지역을 지원했고 받았던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학 (20점 만점)	전공 (80점 만점)	1차 점수	수업실연 (50점 만점)	심층면접 (50점 만점)	총 점수
초수(2022)	17	45.33	62.33 (컷 -11.67)			
재수(2023)	18	48	66 (컷 +3)	41.23	45.41	152.64 (컷 -3.35)
삼수(2024)	16.33	43	59.33 (컷 +9.33)	46.45	48.88	154.66 (컷 +10.4)

초수, 재수, 삼수 때 대략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적고 제가 생각한 불합격, 합격의 요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과 공부 자료는 제 블로그에 하나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세요.(자료가 업로드 되기 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Monologue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0. 대학 시절

대학 다니면서 강의를 충실하게 듣고 과제나 시험에 대충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 덕분에 기본적인 전공 실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목은 문제 답을 암기하면서 풀이를 하기도 했지만 각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또 강의 내용을 몰아서 복습하려면 이해도 잘 안되고 다음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도 어려움이 생겨서 최대한 바로바로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추후에 임용을 준비하면서 강사 강의를 듣긴 했지만, 모르는 개념은 거의 없었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임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보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 강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전공 수학을 탄탄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초수

저는 3학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임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육학	1-2월 개념 강의(대학교 제공_권지수) → 스터디로 인출, 내용 복습 → 실전모고 답안 써보는 연습
수교론	교수님 강의 영상으로 개념 복습 → 4학년 수강 강의 들으면서 개념 + 기출 연결해서 학습 → 강사 문제로 풀이 방법 공부 → 실전모의고사 풀이
전공	해석학, 대수는 스터디로 기본서 연습문제, 기출문제 풀이 / 나머지 과목은 기출기반으로 개념 공부 / 해석학, 대수는 4학년 때 강의 들으면서 개념 더 보충 / 하프모고 풀이(이때 답안지 써보는 연습 제대로 시작) / 실전 모의고사 풀이

대략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교생실습을 다녀오는 동안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고 6월쯤 선배의 제안으로 하프모고를 함께 풀었는데 기출 변형인 문제들도 잘 풀지 못하는 실력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면서 시험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학은 지엽적인 영역을 제외하면 조금씩 쓸 수 있었지만 전공 문제는 그 당시 실력으로 풀 수 없었고 좌절과 회복의 반복이였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시험을 보러갔지만 부족한 실력으로는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2차 준비 (수업실연& 면접)	지도서(중1~고1)공부 → 판서연습, 문제 구상하고 실연하기 + 면접공부는 다양하게 시도해봤지만 많이하지는 못함

1차에 붙을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같은 학년이였던 선배의 제안으로 12월 한 달동안 함께 2차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지도서 공부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처음엔 많은 양을 이해하고 인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스터디를 통해서 끝까지 내용을 볼 수 있었고 12월 막바지에는 수업실연 연습도 진행 했습니다. 처음 2차를 준비해보는 사람들끼리 면접을 준비하려니 막막했고 지도서 공부하는 것으로도 벅차서 면접 준비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했던 공부를 통해 재수 때 수교론 관련된 지도서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1차 시험이 끝나고 다시 2차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도서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수업실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면접 준비에 시간을 써서 면접 공부와 준비까지 여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초수 때 좋았던 점과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방법은 좋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좋았던 점 >

1. 스터디를 꾸준하게 했던 것 (전공 기본서, 기출풀이 / 교육학 개념 인출)
   → 이때 스터디의 장점은 많은 양을 끝까지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2. 대학 강의를 통해 전공 수학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 이해 해둔 전공개념이 임용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3. 대학교 지원을 활용한 점
   → 전공 스터디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지원금도 받아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ㅎㅎ / 학과에서 모의고사 시즌에 B4용지로 시험지 출력을 지원해 주셔서 실제 시험지 크기와 유사하게 연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시험을 보러간 것
   → 결과는 불합격이였지만 초수 때 시험장을 경험해보니 재수 때는 확실히 시험장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시험 준비가 다 안됐더라도 시험에는 꼭 응시하시고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2차 준비를 한 것
   → 이유는 위에 적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합격하지 못한 이유>

1. 빠르게 임용 준비를 시작하지 않음
   → 학과 공부는 놓지 않고 계속 했지만 초수에 합격하기 위해선 조금 더 빠르게 임용 준비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3학년 쯤부터는 배웠던 과목들 위주로 임용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시험에 대한 회피
   →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불안이 높아서 불합격을 걱정하며 공부에 올인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행동들인지 적었다가 tmi인 것 같아 지웠습니다. 각자 해야 하는 일로부터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대한 대비 부족
   → 기출문제를 단순히 반복해서 푸는 것에만 집중했지,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2. 재수

초수 1차 결과가 나오고 임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전공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월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고, 초수 때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교육학	권지수 개념 강의 + 밴드 스터디 (오픈형으로 퀴즈) → 오픈형 대비 사례문제 → 7-8월 영역별 모의고사 (논술 만능틀 숙지) → 9-11월 실전 모의고사(논술 만능틀 활용) + 스터디로 랜덤질문
수교론	김민아 개념 강의 + 스터디 (15개정 인출, 기출 풀이) → 스터디(15개정 랜덤질문, 영역별 문제 풀이) + 수교론 청킹 만들고 적용 연습 → 지도서 공부 + 지도서 밴드 스터디(문제풀이) → 9-11월 실전 모의고사 + 스터디(랜덤질문) + 목차 만들어서 백지 인출
전공	서브 과목 기출 풀이 + 해석학 기본서 연습 문제(선배한테 질문하면서 공부함) + 대수, 위상, 선대, 복소 (구준모 강의) + 대수 기본서 연습문제 + 위상 기출 → 요일별 공부 시작 → 5-6월 스터디(하프모고) + 과목별로 개념 구조화&목차화 + 기출 반복적으로 풀이(분석을 다양하게) → 7-8월 스터디(2022대비 모의고사 풀이, 좋은 문제 복습, 전공 랜덤질문) + 1일 3증명 만들고 공부 + 각 과목 유형별로 공부(기출&개념&모고유형화) → 9-11월 스터디(실전 모의고사 풀이 피드백, 전공 랜덤문제풀이) + 전체적으로 복습, 반복

재수 때는 본가에 있었고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공부했습니다. 3월부터 시험 보는 전날까지 캠스터디를 통해 동기와 함께 공부했고 같이 졸업한 선배와 짝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시험 날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일년동안 공부를 해야한다는 부담감과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힘들었습니다. 초수 때 갖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을 채워나갔고 많은 양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 목차를 이용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 아쉬움이 남아 합격이 기대되지는 않았지만 1차가 끝난 후 2차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2차 준비 (수업실연& 면접)	12월(온라인 스터디) 실연 스터디 - 지도서 공부 , 실연 문제 구상 후 말로 설명 면접 스터디 - 기출문제로 시작(대본 써보기, 대본 말해보기, 키워드만 적고 말해보기 ~) + 다른 지역, 책 문제로 문제 만들어서 구상하고 답하기
	1월(오프라인 스터디 + 온라인 스터디) 실연 - 김민아 문제로 실연 연습 (화이트 보드, 블랙보드) 면접 - 기출 + 만든 문제로 연습 목포대 특강 - 실연, 면접 실전처럼 하고 선배들 피드백 받기 온라인 스터디 - 기출 즉답형 연습

스터디를 통해 12월에 지도서 1회독을 마칠 수 있었고 실연 문제 구상하는 틀을 잡고, 면접 답변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해두었습니다. 1차 결과 발표가 나고 순천에서 공부 중이던 선배와 함께 1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했지만 2차

시험 전 컨디션이 안 좋았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서 실연 문제가 나와 조건을 모두 채우지 못해 실연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 좋았던 점 >

1. 좋았던 공부 방법
   → 요일별 공부 - 매일 전공 과목을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할 수 있었고 지루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월-해석,복소,확통/화-대수,선대,정수론...)
   → 목차화 : 수교론의 각 영역과 전공의 각 과목별로 제 나름대로의 목차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하고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목차를 반복해서 보면서 약점을 파악하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1일 3증명 : 해석, 대수, 위상의 정리를 매일 1개씩 총 3개를 증명하는 공부방법입니다. (유튜브 유현정 선생님의 방법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씩 자료를 만들어나갔습니다.)
   → 청킹과 자동화 : 교육학은 논술의 만능틀(블로그 우경우경님의 방법 참고), 수교론은 청킹 등을 활용해서 시험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 스터디 (캠스터디와 랜덤질문 스터디)
   → 캠스터디 : 월~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캠을 키고 함께 공부
   → 랜덤질문 스터디 : 전공 개념과 전공 문제, 15개정 교육과정, 수교론 개념, 교육학 개념을 랜덤으로 질문하고 서로 답하는 방식 (많은 분량 중 놓치고 있는 개념이나 약점을 발견하기에 좋았습니다.)
3. 시험 전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면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하니 실제 시험 날에도 모의고사를 보는 날과 마음이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시험 장에 도착한 후, 각각 쉬는 시간의 마음가짐과 확인할 복습 내용 등을 정해두고 반복했습니다.)
4. 2차 목포대 특강 : 선배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실전처럼 실연, 면접
   →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하면서 긴장되는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최근 합격하신 선배들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 방향을 수정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 합격하지 못한 이유 >

1. 1차 점수의 아쉬움 : 조금 더 여유있게 1차 점수를 받았다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전공 시험에 나올 부분이 예측은 됐지만 예측한 부분 중 약점을 더 연습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ex. 위상수학 : 도집합을 직관적으로 찾는건 쉽게 되지만 서술로 답하려면 막힘)
2. 2차 준비 부족 :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수업실연 문제가 출제 되었고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연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망했다.'라고 느꼈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 삼수

2월에 최종 탈락을 한 후 다시 공부에 올인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고 중학교 시간강사를 하며 임용을 준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행정업무는 맡지 않아 주 6시간 학교 수업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 때와 비교하면 공부 시간이 많이 줄었고 오랜 시간 공부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6시간 공부하는걸 목표로 했었는데 2-3시간만 하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도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약점을 채워 전공 실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학	개념서(권지수 요점쏙쏙) 읽으면서 복습 + 사례연습 문제 풀면서 내용 인출 → 23년도 대비 7-8월 영역모고로 영역별로 내용 인출 → 교육학 개념 타이핑하면서 복습(그냥 읽기만 하면 지루해서 진행함) → 24년도 대비 7-8월 영역모고 개요 작성 + 논술작성(만능틀 활용) → 24년도 대비 실전모고 개요 작성 + 논술 작성 + 실전모고 내용 복습 + 부족한 개념은 계속 반복 + 8~10월 : 1주일에 1번 교육학 랜덤질문 짝스터디
수교론	15개정 복습, 22개정 교육과정 암기 / 수교론, 수교재 기본서(수학교육학신론,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쭉 읽기 + 타이핑으로 정리 → 23대비 김민아 모의고사 문제 풀이 (하루 반회차씩, 개념 복습만 하니 늘어져서 문제풀이를 함) → 김민아 7-8월 영역모고 문제 풀이 → 10월부터는 전공, 수교론 실전 모의고사 풀이 → 마지막엔 파이널 모고 풀면서 개념 전반적으로 확인 + 문제 풀이 할 때는 수교론 청킹 만들어 둔거 활용 + 8~10월 : 1주일에 1번 수교론 개념&문제 랜덤질문 짝스터디 (지도서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중학교 내용만 가볍게 1회독 함)
전공	기출문제 다시 풀이 + 1일 3증명 공부 + 밴드스터디(23모고유형화 풀이) → 하프모고 풀이 + 개념 유형별로 알고리즘 익히려는 공부 → 하프모고, 23모고유형화 복습 + 알고리즘 노트, 요약노트 반복해서 숙지 → 실전 모의고사 풀이 (G스쿨 공개모고, 블로그 모의고사, 임대성, 정현민) + 7~11월 : 1주일 1번 전공 개념&문제 랜덤질문 짝스터디

시험 날 전공 문제들을 잘 풀어내진 못해서 전공 실력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교육학과 수교론을 잘 준비해둔 덕에 교육학은 평소와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수교론에서는 감점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공이 어렵게 나온 올해 시험에서 저는 교육학과 수교론 덕분에 좋은 점수로 1차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확신이 없었지만 시험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고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과정이 모두 시험장에서 실력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운 좋은' 시험으로 출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차 준비 (수업실연& 면접)	12월 수업실연-전화 스터디로 인출 (지도서 중1 ~ 고1 내용 공부, 2명에서 진행) 면접-면접 레시피 책으로 개념 공부 (1차 붙는다는 기대감이 없어서 많은 양은 하지 못함, 가볍게만 읽음) + 기출문제 답해보기
	1월 수업실연-지도서 전체적으로 복습 + 실연 문제로 20분 구상하기 + 실연 연습하기 (주 2-3회) → 지도서 개념 정확하게 숙지, 문제 구상 많이 해보면서 만능틀 만들기 &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구상 많이 해보기 면접- 오프라인 스터디 (주 3회, 2문제 실전처럼 구상하고 답하기-기출문제와 면접레시피 문제 활용) → 답변 구조화 익숙해지기, 구체적이고 사례 풍부하게 이야기하기 목포대 특강 - 수업실연, 면접 (합격자 피드백)

최종탈락의 경험 때문에 2차를 다시 준비하는 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에 붙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12월에는 지도서 1회독만 제대로 하자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1차에 합격하고 나서 순천에서 오프라인 스터디를 구해보려 했지만 수업실연 스터디는 구할 수 없었고 면접 스터디는 생물, 일반사회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3명 모두 최종합격해서 연수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ㅎㅎ)

< 좋았던 점 >

1. 랜덤질문 스터디
   → 재수 때 했던 짝스터디 방식이 저와 잘 맞았고 공부에도 도움이 돼서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진행했습니다.
2. (수교론, 교육학) 문제에 많이 적용하는 연습 + 문제 분석하는 연습
   →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가 어떤 답을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을 쓰는데 집중함
3. 목포대 특강
   → 실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선배들이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4. 면접 스터디
   → 실전 경험이 있으니 혼자 준비할까 고민 했는데 스터디 안했으면 후회 했을겁니다.. 타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니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5. 잘 쉬면서 공부한 것
   → 사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쉰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잘 쉬어지진 않지만.. 억지로 공부하는 것 보다는 각자 상황에 맞게 휴식을 하고 공부 쓸 에너지를 충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쉬고 돌아왔을 때 어떤 공부를 하는게 합격에 도움이 될지 더 생각하면서 다음 계획을 잡을 수 있었고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6. 일별, 주별, 월별 피드백

→ 초수 때부터 계속 했던 루틴입니다. 기록의 가장 큰 장점은 동기부여였습니다. 장기간 공부를 하면서 아무것도 쌓여있지 않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 때 어떤 공부를 해왔었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1. 전공 알고리즘을 많이 체화시키지 못함
   → 이왕 공부하는 거 제대로 전공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2. 실연 오프라인 스터디 못한 거
   → 스터디 없이 진행하니 늘어지기도 했고 수업실연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풍부한 상호작용과 발문 하는 것,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실연하는지 더 보고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는걸 추천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임용을 준비하는 동안 심리적,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최종 합격하고 이렇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다는게 스스로 뿌듯하네요. 저도 다양한 합격 수기들을 읽으면서 공부 방향을 잡고 합격자분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채찍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과 선배들 합격수기를 읽을 땐 같이 학교 생활 했던 분들이라 더 마음에 와닿더라구요. 제 합격수기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ㅎㅎ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글이 길어졌네요..ㅎㅎ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좋고, 한 번씩 생각날 때 보시면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잡는 용도로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딱 한가지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조금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임용 합격을 위해서는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점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없이 막연하게 공부한다면 공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생각했었던 교사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수석 합격해서 순천에서 일해야지'라는 저의 목표가 제 현실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노력하다보니 고득점으로 합격했고 진짜로 순천에 발령받아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샌가 나타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교수님들과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해준 스터디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